# Élégie for cello and orchestra, Op. 24

- □□

정보

개요
곡명: Élégie for cello and orchestra, Op. 24
작곡가: Gabriel Fauré (1845–1924)
장르: 독주 첼로와 관현악을 위한 단악장 애가
기원: 1880년 미완성 첼로 소나타의 느린 악장으로 시작한 첼로 ·피아노 작품
관현악판 : 1895년 (일부 자료는 1897년) Édouard Colonne의 요청으로 편곡, 1901년 4월 26일 공개 초연: 첼로 ·피아노판은 1883년 12월 15일 파리 Société Nationale de Musique에서 Jules Loëb(첼로)와 Fauré(피아노)가 초연. 관현악판은 1901년 4월 26일 Pablo Casals(첼로)와 Fauré(지휘)가 연주
기준 범위: Op. 24의 원곡과 Fauré가 만든 관현악판을 서로 다른 편성 ·연주 단계로 구분해 다룬다.

IMSLP: Élégie, Op. 24

Wikipedia: Élégie (Fauré)

Gabriel Fauré(1845–1924)의 Élégie for cello and orchestra, Op. 24는 첼로가 긴 선율을 이끌고 관현악이 그 주위를 받치는 단악장 작품이다. 곡의 출발점은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미완성 소나타의 느린 악장이었고 , 1883년에 독립곡으로 공개된 뒤 19세기 말에 관현악판이 마련되었다 . 따라서 오늘날의 제목은 하나의 고정된 편성만 가리키지 않으며, 원곡과 관현악판의 작곡 ·출판 ·초연 단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

소요 시간

IMSLP는 평균 연주 시간을 약 7분으로 제시하고, Paris Philharmonie의 작품 자료는 피아노판을 약 8분, 관현악판의 영상 공연을 9분 안팎으로 소개한다. 연주 템포와 반복에 따라 대체로 7–9분의 범위에 놓인다.

두 편성과 출판 단계

Fauré는 1880년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느린 악장을 먼저 썼다. 계획한 소나타의 나머지 악장은 완성되지 않았고, 이 악장은 Élégie 라는 제목의 독립곡으로 정리되어 1883년에 출판되었다 . 원곡의 피아노는 반복 화음과 화성 진행을 직접 제시하며 첼로의 선율을 가까이에서 받친다.

Édouard Colonne가 관현악화를 요청한 뒤 Fauré는 같은 음악을 독주 첼로와 관현악의 음향으로 옮겼다. Philharmonie de Paris, Orchestre national de Bretagne, Faber Music 자료는 이 작업을 1895년으로 기록하지만 , Maison de la Radio 프로그램은 1897년으로 표기한다. 관현악판 자체의 공개 연주는 1901년 4 월 26일로 자료가 일치한다. 편곡 시점의 차이는 두 자료가 관현악화가 진행된 시기를 다르게 기록한 결과이며
, 두 편성은 하나의 작품이 서로 다른 공연 단계로 전승된 형태다.

편성

원곡은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실내악 편성이다. Fauré의 관현악판은 독주 첼로,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호른 4, 현악기로 이루어진다 . 관현악은 소규모 음향을 유지하면서 피아노의 화음과 지속을 목관 · 호른 ·현악의 색채로 분담한다. 독주 첼로가 두 편성에서 계속 선율의 중심을 맡는다는 점이 판본을 잇는다.

형식과 선율 진행

Élégie 는 C단조의 바깥 부분과 A♭장조의 중앙부가 대비되는 3부 형식에 가깝다. Bru Zane Mediabase는 이 구조가 소나타의 느린 악장으로 구상된 기원과 연결되며, 작품의 강한 표현성을 설명한다고 정리한다.

처음에는 피아노의 반복 화음 위로 첼로가 넓은 선율을 펼친다. 하행하는 동기가 여러 선율 진행으로
이어지면서 C단조의 애도 정서를 만든다. 중앙부에서는 A♭장조와 3박 계열의 주제가 등장하고, 피아노가 먼저 제시한 선율을 첼로가 이어받는다 . 첼로의 음역과 움직임이 넓어지면서 절정이 형성된 뒤, 처음의 C단조
구간이 돌아온다. 마지막 귀환은 중앙부의 고조를 거친 뒤 선율을 축약하며 마무리된다 .

이 진행은 ‘슬픔 –격정 –귀환 ’이라는 세 단계를 하나의 호흡으로 이어지게 한다. 공연 자료가 설명하는 바깥
부분의 장중한 고요와 중앙부의 극적 절정은 원곡에서 분명하며, 관현악판은 같은 선율 구조에 더 넓은 음색의 호흡을 부여한다.

작곡가 ·초연자와 작품의 정착

Jules Loëb는 Fauré가 처음 소나타를 구상할 때 염두에 둔 첼리스트였고 , 1883년 공개 초연의 독주자이자
작품의 헌정자였다 . 1880년 6월 21일 Saint-Saëns의 살롱에서 작품이 연주되었다는 전승은 Fauré가 Julien Hamelle에게 보낸 편지와 함께 전해지지만 , 공개 초연은 1883년 12월 15일 Société Nationale de Musique 에서 이루어졌다 . 이때 Fauré가 피아노를 맡아 원곡의 편성을 직접 이끌었다.

관현악판의 첫 연주는 1901년 4월 26일 같은 협회에서 Pablo Casals가 첼로를 연주하고 Fauré가 지휘한
공연으로 기록된다. 이 공연은 1883년 실내악 초연 이후 작품이 독주 첼로와 관현악 레퍼토리로 옮겨 간
시점을 명확히 한다. 오늘날에는 두 편성이 병행되며, 각 편성의 반주 방식과 연주 시간이 서로 다르게
전승된다.

연주 ·녹음 자료

Paris Philharmonie는 Eric Picard, Orchestre de Paris, Paavo Järvi의 관현악판 영상을 약 9분 3초로 올려 두었다. 이 자료는 관현악판의 실제 소요 시간과 소규모 관현악 편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공연 기록이다. IMSLP에는 Narek Hakhnazaryan·Noreen Polera의 피아노판 공개 녹음과 다른 피아노판 파일이 수록되어 있으며, 해당 페이지의 평균 7분 표기는 원곡 중심의 시간으로 읽는다.

Bru Zane와 공연기관의 해설은 작품을 Fauré 초기의 강한 표현성과 연결하면서도 , C단조의 바깥 부분 ·A♭ 장조 중앙부 ·독주 첼로의 긴 선율이라는 구체적인 형식으로 설명한다. 이 관점은 C단조와 A♭장조의 대비를

통해 짧은 형식 안에서 선율과 음색이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주요 자료

IMSLP, Élégie, Op. 24: 원곡 ·관현악판의 서지, 평균 시간, 초연 ·연주자, 악보와 녹음 목록
Bru Zane Mediabase, Élégie op. 24: 1880년 기원, 1883년 Loëb 초연, ABA 구조와 C단조 ·A♭ 장조 중앙부
Philharmonie de Paris, Élégie pour violoncelle et piano, op. 24: Colonne 요청에 따른
관현악화, 1901년 Casals·Fauré 공연, 관현악판 영상
Orchestre national de Bretagne, Dossier pédagogique – Élégie: 관현악판 편성, 초연과 작품 형식 해설
Faber Music·Edition Peters, Élégie op. 24: 1880 작곡 ·1883 초연 ·1895 관현악화 ·1901 초연의 판본 서문
Maison de la Radio et de la Musique, 2024 프로그램: 1897 표기와 1901년 Fauré 지휘 기록 Wikipedia, “Élégie (Fauré)”: 기본 서지와 관현악판 정보